치 사

우리 종단 포교원이 설립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미래세대에게 전통문화의 가치를 일깨우고 계승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을 험없이 정진해 왔으며,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연마할 수 있는 소중한 정신의 도량이었습니다.

향을 싸던 종이는 향내를 풍기고 생선을 묶었던 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기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성심으로 보살펴온 파라미타에 깊은 치하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스무 살 건장한 청년으로서 청소년들의 삶에 맑은 향내가 배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공덕으로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속에서 즐겁게 생활하며 올곧은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겨레의 전통문화를 뜻 깊게 받아들이고, 문화의 자부심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친절한 벗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등불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지도자와 소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여 년의 한결 같은 노력으로 결실을 이루어 왔듯이, 앞으로도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밝은 심성을 키워나가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중한 인연과 공덕으로 우리 사회가 밝게 빛나고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60년 11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